文化財와 都市計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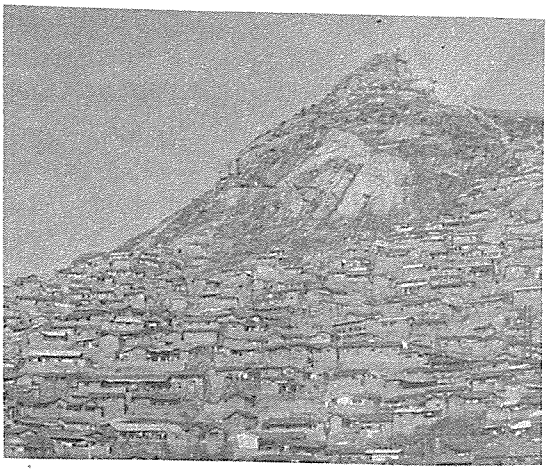
吳 光 洙
(美術評論家)

1

현재 서울市는 古都의 이미지를 어떻게 살려가야할 것인가 하는 保存의 문제와 성장해가는 現代都市로서 어떻게 開發해 가야할 것인가 하는 두개의 相衝的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都市는 過去에 집착해 있지 않고 生命있는 有機体로서 항상 발전되어 가는 未來쪽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것은 루이스·맘포드가 말한 것처럼 「都市는 過去에 이루었던 것보다는 未來에 더욱 많은 의미있는 부분을 이루어갈」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도 예외없이 現代都市들이 겪는 격심한 人口增加, 經濟發展, 交通形態의 변모, 社會化현상을 치르고 있다. 靜態的인 양상에서 動態的양상으로, 平面的 二次元的이던 것에서 立体的, 三次元的인 성격으로 급속히 변모되고 있다. 그것은 최근 서울市계획의 주요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道路計劃, 不良地區再開發, 古蹟復元, 이 구체적으로 말해 준다. 陸橋와 地下道, 高架道路와 현재 추진중인 地下鐵계획 등 道路網은 거의 立体化되었다. 市街地를 에워싸고 있는 高地帶를 중심으로 한 스럼街를 개발하여 高層아파트群을 세워 都市내에 격증하는 人口와 住宅難을 해소할려는 政策이 시행되고 있다. 商街는 매머드化되고 슈퍼마켙이 여기저기 생겨 나고 있고 좁은 대지에 높아지는 高層建物의 범람이 최근 10년간 서울都市가 겪은 막심한 變化를 말해 주고 있다.

1394년 李太祖가 開京으로 부터 遷都하였든 서울, 牛馬車가 지나다니든 光化門 앞의 六曹앞은 十二間 도로로 바뀌고 끊임없는 車輛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 韓日合併때 겨우 20萬이든 서울人口가 현재 500萬을 넘어서고 있고 城안을 中心으로 했든 求心的인 都市構造는 격심한 스포를(Sprawl) 현상을 일으켜 都心은 혼란의 極을 달리고 있는 인상이다.

人口의 都市集中化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都市化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된 英國에서도 19세기초까지는 대부분 農村人口였던 것이 19세기 말에 와서는 全人口의 75%가 都市로 몰렸고 19세기 초까지 불과 全人口의 6%밖에 되지 않았든 美國의 都市人口가 1960年代에 들어와서는 64%에 달했다고



한다. 해방 직후만 해도 농촌인구가 8할이라고 말해오든 소위 農業國이든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현재 都市人口가 전체 인구의 반수를 상회하고 있다. 서울人口가 500만을 넘고 있으니 人口 44萬의 全南韓人口의 7분의 1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와같은 소위 都市化現狀은 뉴욕이나 東京보다 서울이 앞지르고 있다니, 오늘날 처럼 서울都市問題의 심각성이 그 극에 달한적은 없는 것 같다.

루이스·맘포드가 일찌기 「美國의 都市는 너무 密集해서 呼吸이 곤란하게 되고 결국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적이 있는데 서울의 현재 상황이 이러한 呼吸장애의 지점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다. 大都市의 고민은 世界的인 공통된 골치거리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都市政策이 빈곤한 국가일수록 그 심각성은 더하기 마련인 것이다. 이와같은 都市化現象에 있어 가장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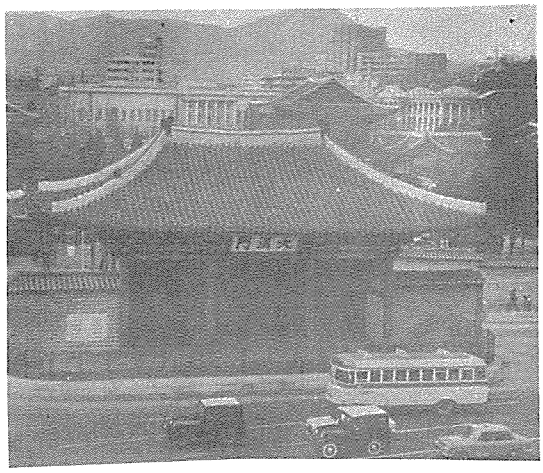
은 피해를 받아왔고 또 앞으로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한 歷史的環境의 문제는 논의의 쟁점이 되어 마땅할 것 같다.

최근에 이르기까지 都市計劃에 있어 가장 빈번히 문제가 되었을 것은 文化財의 보존이었다. 성장하는 都市에 있어 過去의 遺蹟 보존문제는 대부분의 歷史的 都市가 당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은 5百年의 王都로서 特色을 지닌 都市이다. 과거의 도시가 현대적인 도시로 발전해야하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인데 어떻게 古都로서의 이미지를 살리면서 발전해야 하는가가 난점이다. 뉴욕이나, 런던이나, 기타 西歐의 先進工業國의 都市와 같은 어떤 類形化된 발전을 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西歐의 제도시에서 볼 수 있듯이 王都를 中世 商人들에 의해 商人都市로 변모시키고 그것이 다시 産業革命에 의한 手工業的 기반 위에 서 있든 商人都市를 붕괴시킴으로서 近代的인 의미의 商工業 都市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서울은 이러한 西歐都市의 발전과정을 겪은 現代都市는 아니다.

王朝時代부터 都市計劃은 있었든 것은 물론이다. 우선 山野를 이용한 天然要塞에 城壁을 쌓고 宮殿을 쌓고 宮殿을 비롯한 封建社會의 政治的·文化的·중심기구로서의 각종 建造物과 市街地經營, 土地利用計劃 등이 오늘날과 같은 都市計劃的인 관점에서는 아니나 하나의 法制度로서 이루어져 왔다. 오늘의 서울의 都市的 根幹은 이미 이때 견고히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오랜 鎖國政策과 封建制度에 밀려 産業革命을 계기로 발전된 近代的인 의미의 都市發展을 기하지 못했다. 특히 해방이후 서울이라는 歷史的, 地域的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都市法規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서울의 모습은 歐美諸都市와 꼭같은 外形을 닮아가고는 있지만 近代的인 의미의 都市에로의 發展과정이 비어있기 때문에 古都와 現代都市를 연결지우는 계기가 없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대로 놓이고 말았다. 文化財가 겪어야 하는 사정은 이때문에 더욱 나쁜 조건에 놓이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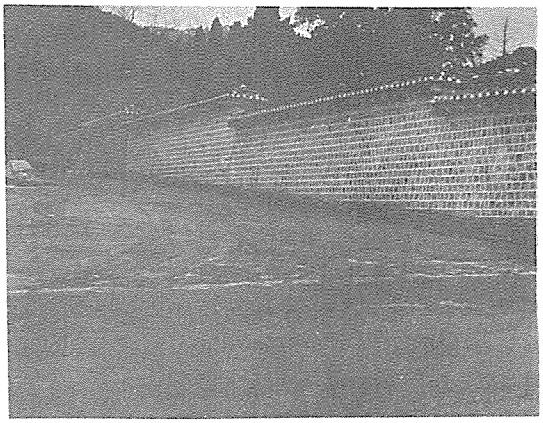
2

文化財라 하면 일반적으로 有形文化財, 無形文化財, 史蹟 名勝天然記念物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有形文化財 가운데는 建造物, 繪画, 彫刻, 工藝品, 書蹟, 典籍, 古文書 기타 有形의 文化的 所産으로 歷史上, 藝術上 價値가 높은 것을 말하며, 無形文化財는 演劇, 音樂, 무용, 工藝技術 기타 無形의 文化的 所産으로 歷史上 또는 藝術上價値가 높은 것으로 포함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文化財라면 有形文化財로서 都市內에 散在되어 있는 대부분의 建造物이 포함된다. 서울은 典型的인 王都로서의 特徵인 城郭과 宮殿이 都市空間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자리를 차지한다. 宗廟, 社稷을 비롯한 景福宮, 昌德宮, 昌慶宮, 慶熙宮, 慶運宮 등의 宮闕, 이 宮闕의 주위를 싸고도는 石築의 高埼과 여기에 딸린 門들. 碑閣, 鍾閣과 같은 紀念碑建物, 南大門, 東大門과 같은 현존하는 四大門. 이러한 遺蹟들이 현재 서울市內에 現存하는 文化財로서 현저한 것들이다. 倭政下의 都市計劃과 그나마 6.25戰難으로 많은 文化財的 遺産들이 소실되었다. 거기다 최근 建設붐을 탄 급격한 都市의 성장이 古都의 이미지를 파괴하는데 급템포를 밟고 있다. 날로 늘어가는 高層 密集建物群의 확장은 過去의 建築의 頂點을 이루었던 紀念的 建築物을 매몰시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高埼속에 圍繞되었든 宮闕의 古風한 空間은 주위에 치솟아 오르는 건물군에 쌓여 이제는 그 아극한 空間感을 반감시키고 있으며, 宮속을 들여다 보면서 휘달리는 高架道路에서 내품는 소음과 매연은 宮闕의 靜謐한 空間感을 파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아한 建築美를 자랑하는 南大門과 東大門은 이미 멋대로 치솟는 주위의 商業主義 建造物로 인해서 민망스럽게도 초라한 印象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文化財의 受難은 道路網과,구획정리에서 오고 있다. 市廳앞 광장의 道路幅 擴張은 德壽宮 垜壁을 두차례에 걸쳐 헐게 했으며 大韓門은 도로 가운데 남아 있다. 다시 후퇴하였다. 道路 계획 때문에 피해를 입은 文化財의 주요한 케이스는 역시 七宮과 社稷壇일 것이다. 七宮



은 새로운 道路의 擴張때문에 두동강이가 났고 社稷壇 정문 앞으로 大路를 신설하여 각종 교통량에서 받는 피해는 고사하고 그 본래의 視覺的 造化를 상실케 하고 말았다. 視覺的 造化의 상실과 아울러 文化財가 겪고 있는 수난중의 또 하나는 都市公害로 인한 物理的인 피해가 그것이다. 각종 차량에서 내품는 매연까스는 인체의 건강에 뿐 아니라 文化財의 수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사실이다. 南大門의 丹靑은 보기 추하게 퇴락해 간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각종 차량에서 내품는 매연 때문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게 文化財의 숙명을 단축시킬 것이 자명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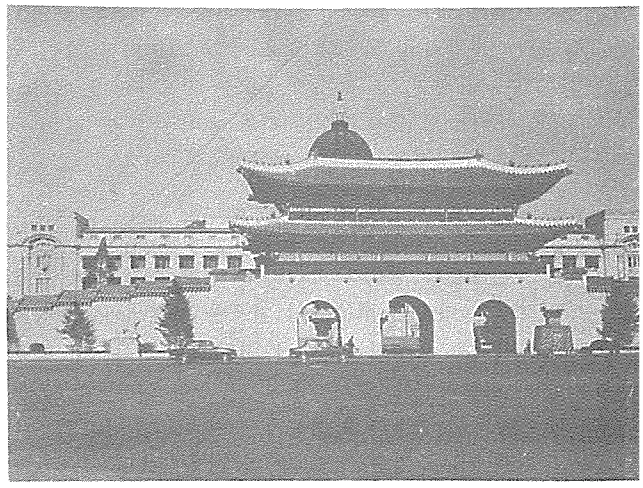
都心地域의 區劃정리를 再開發이라는 명목으로 좋은 成果를 거둘 때도 있으나 대부분 옛 都市의 잔재인 空間의 스케일과 史的 價値가 있는 遺物들의 파기를 초래할 때가 많다. 가령 하나의 例로서 몇년전 六堂이 관계한 文化史的 의미를 지닌 光文會 건물이 이전될 예정도 없이 헐어버린 일이 있었다. 이 건물은 건조물 자체로서는 가치가 없었으나 이 건물을 중심으로 펼쳐졌든 文化史的 紀念的 價値로 보아선 마땅히 보존되어야 마땅할 것이었다. 現存하는 건물 가운데는 건물 자체로는 건축적 가치가 없으나 이처럼 紀念的 價値를 지니고 있는 것과 紀念的 價値는 없어도 건물 자체의 建築的 價値로서 남아있는 건물들로 나누어 볼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건축적 가치가 없는 것만을 철거시킨다는 것은 아니다. 비록 그것이 史的 紀念性과 건축적인 아름다움을 구비한 것일지라도 都市計劃에 희생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한때 德壽宮의 市廳앞 광장과 면한 담장이 철거되고 대신 內部가 들여다 보이는 철책으로 한 적이 있었다. 굳이 육중한 담장으로 밀폐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은 몇해전 宗廟의 담장을 헐자는 안까지 들고 나오게 했다.

文化財는 우선 學問的價値, 歷史的價値를 우선으로 하는 原形保存에 중점을 두고 다루어야 한다는 상식마저도 무시되고 있을 때, 우리의 文化的 遺産은 알게 모르게 倒産되어 가고 말 것이다.

3

실제 文化財의 死藏을 우려한 開發이 오히려 文化財의 破壞와 變形을 초래하고 있는 例를 얼마든지 대하게 된다. 이와 아울러 文化財에 따른 지나친 復古취향이 文化財復元이란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장 뚜렷한 例가 光化門復元이다.



光化門은 解放이후 가장 규모가 큰 復元으로 또한 그것은 우리民族의 오랜 念願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이 실현되었을 단계에 미처서는 文化財復元의 결점을 들어 내놓았다. 文化財復元이란 글자 그대로 옛것 그대로 再現시킨다는 것이다. 文化財보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原形保存이 復元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대도 光化門은 木材를 대신한 시멘 콘크리트로 施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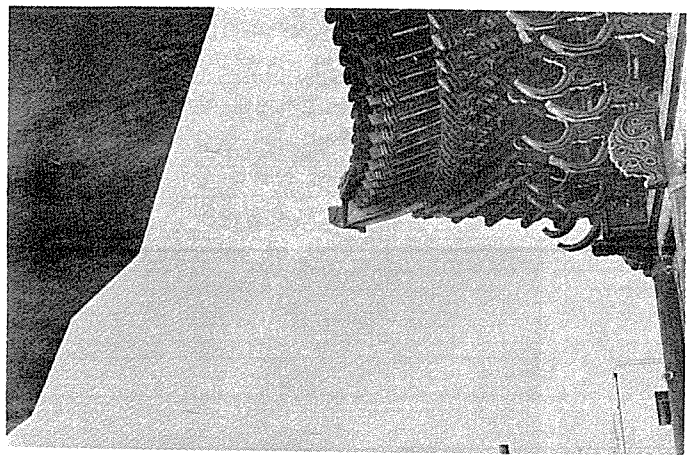
이것은 原形의 再生이라기 보다는 原形의 모형을 세우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실제 光化門은 木造의 門樓와 石壁의 造化에서 그 建築的 아름다움을 지니었든 건물이다. 日人 柳宗悅은 특히 헐리어지는 光化門을, 그 建築的, 空間的 價値로서 격찬해 마지 않았으며, 日人 關野貞도 그의 「朝鮮의 建築과 藝術」에서 光化門을 三關重層의 당당한 手法의 建築이라고 적고 있다.

더우기 民族의 오랜 염원이었든 저간의 사정은 光化門의 運命이 이 民族의 운명과 같은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景福宮의 正門으로서 光化門을 헐고 그 자리에 總督府 廳舍를 지었을 때, 光化門은 지금의 建春門 위에 옮겨졌으나 이미 그때 史的紀念性은 상실해저 버렸다.

光化門復元은 歷史的 紀念性의 回復을 위한 것이지만 현실적 여건에선 무리한 조건을 지닌 것이었다. 우선 光化門復元은 景福宮의 正門으로서 뒤로 北岳을 등지고 앞으로 六曹를 향해 열려진 것이어야 하는데 중앙청 청사의 육중한 西歐 르네상스 스타일이 景福宮을 차단해 버리고 있으며 이미 六曹가 자리 잡았든 官衙는 고층 빌딩으로 늘어섰다. 제자리를 고집한 것은 좋았으나 이미 많은 주변의 환경적, 시각적 不造化를 각오해야만 했다. 文化財復元 역시 都市計劃과 떼어놓을 수 없는 절실한 문제점을 던져준 것이다.

4

이와같은 경우가 아니라도 현재의 文化財 보호정책은 단순한 單位的인 건조물 보호에만 국한되어버리는 인상이 짙다. 外國의 경우에는 한 歷史的 遺物이 있으면 그 주위환경부터 이 遺物에 조화되게끔 일정한 환경통제가 따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單位的인 遺物自体만 保存할려고 했지 그것의 造化된 보존, 항구적인 환경의 조성에 소홀하고 있다. 이미 南大門, 東大門과 같은 도로 가운데 버려진 건조물은 유독 그 주변환경의 조화된 보존책이 없어 고도와 같이 떠밀려가고 있는 인상이다. 실제 古都의 이미지 역시 이같은 單位的인 建築物에서 받는 것이기 보다는 이러한 單位的인 建造物들이 조화된 자기 자리를 지킴으로서 都市全体를 歷史的遺物로 인상시켜 주며 이로서 古都의 이미지를 짙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文化財들이 個別的인 遺物로서 存在할 뿐이기 때문에 기디온이 말한 것같이 「過去와의 生氣있는 相互關係」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결점을 들어내고 있다. 때문에 現代都市의 發展에 있어선 이러한 遺物들은 때로 하나의 거치장스러운 대상물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文化財 보호가 단순히 유적보존이란 소극적인 方法에 끝나고 말때 성장하는 現代都市에 있어선 死文物로서 방치되어 버릴 것이다.

옛것 가운데 가치있는 부분을 現代에 再生시킨다는 적극적인 새로운 方法을 적용하여 옛것과 새로운 것이 같은 空間內에 대비를 이룸으로서 긴장된 都市空間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文化財의 보존도 넓은 都市空間의 한 살아있는 歷史的 環境으로서 의미를 넓혀야할 것이며 보다 폭넓은 保存策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포란드의 스켄센博物館은 어떤 地區 全体를 保存區域으로 정하고 거기엔 건축, 도로, 道具類에서 衣裳에 이르기까지 傳統的인 形態를 보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觀光的인 目的을 띄고 이러한 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곳도 많다.

단순한 觀光的 目的에만 급급하여 우리도 이같은 계획을 실현하자는 것은 文化財保存의 근본뜻과는 어긋나는 일이다.

서울市는 아직도 옛 도시의 숨길을 간직하고 있는 韓國古有의 정취를 지닌 구역으로서 몇군데의 住宅街들이 있다. 북아현동, 성북동, 안국동, 삼청동 일부의 住宅街는 한국의 典型的 住宅街 로서의

맛을 지니고 있다. 이같은 住宅地域을 설정 보존한다는 것은 하나의 文化財를 보존한다는 의의보다도 古都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있어서 더욱 중요함을 지니고 있다. 도시미는 건물 하나 하나의 아름다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이들 건물들이 서로 모여서 조화있는 구성을 이룰 때 가치있는 것이며, 한국주택의 아름다움의 가치 역시 集團的인 스케일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날로 이 住宅街를 좀먹어 들어가는 추악한 새 건조물들이 현저하게 視覺的 즐거움을 파괴하고 있다.

서울의 古都로서의 이미지를 살리는 시급한 문제는 무작정한 구획정리와 고층아파트 건립을 억제하고 옛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특정한 地域을 지정, 傳統的 形態로 보존하므로서 그것이 현대의 「創造의 자연스런 최초의 원리로서 받아들여져야」(독시아디스) 한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기디온이 「過去의 어느 時代를 연구한다는 것은 그 時代를 단순히 조사한다는 것뿐이 아니라 다음에 오는 모든 時代에 같은 形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하나의 패턴을 탐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文化財를 대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創造의 자연스런 최초의 원리로서 우리들 文化的 유산이 받아 들여졌을 때 우리들의 都市計劃은 文化財의 保存과 現代都市의 개발이란 두개의 상반되는 문제를 훌륭히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會 告

會員 諸位

1) 「建築大祭典」 開催日字變更

10月21. 22日로 公告된 建築大祭典 開催日字는 市民會館의 事情으로 10月18·19日로 이를 앞당겨 開催케 되었읍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2) 定期總會 開催

1971年度 定期總會를 아래와 같이 開催합니다.

日時 : 1971年 10月 20日
場所 : 建設會館 大講堂
時間 : 13 : 00~17 : 00